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최상의 보시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법보시 동참명단

강갑순 강길전 강덕순 강도분(2) 강명옥 강무전 강미남 강미지자 강민경 강선효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이석 강정숙 강정훈 강태희 강혜전 강황진 경연혜 고경민 고경옥 고삼주 고순호 고승연 고양사 고옥인 고은주(2) 고한순 고화경 고희숙 공주학림사 공평근 곽순정 곽중호 곽춘자 곽한영(2) 관음사 구본국 구청길 국계숙 권갑남 권경숙 권귀분 권규열 권규태 권나래 권두상 권민경 권순령 권순자 권영길 권영주 권옥희 권익중 권정화 권태리 권혜림 권효심 금강사 기원정사 김경운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계봉 김광호(2) 김궁자 김규순 김규연 김기석 김기홍 김길봉 김나영 김나은 김다은 김대근 김만순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식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숙 김미연 김미원 김미지 김미현 김민경 김병호 김병희 김복남 김상곤 김상덕 김상분 김상일 김석순(2) 김선아 김선엽(2) 김선옥 김선회 김성기 김성수 김성숙 김성희 김소희 김손희 김수안 김수옥(2) 김수현 김숙자 김숙희(2) 김순남 김순복 김순희 김승만 김승재 김승훈(2) 김시라 김신숙 김신태 김양자 김양희 김연득 김연수(2) 김연옥(2) 김영규 김영래 김영봉 김영식 김영애(4) 김영옥(2) 김영율 김영자(2) 김영팔 김영해 김예지 김옥선(3) 김옥수 김옥자 김용만 김용순 김용호 김원수 김원순 김원심 김원자 김윤관 김윤성 김윤순 김윤자 김윤지 김은하 김의식 김의정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점례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미 김정석 김정숙(2) 김정애(2) 김정화 김정환 김제성 김종길 김종숙 김종영 김종학 김종훈 김종희 김주연 김준 김준모 김준부 김준우 김준호 김중철 김진금 김진섭 김진영 김찬수 김창수 김철수 김철종 김철희 김춘녀 김춘희(2) 김태수 김태윤(2) 김판개 김평수 김학수 김해숙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신 김현화 김형곤 김형조 김형철 김혜석 김혜숙 김호영 김화일 김효상 김효성 김희자 김희진 나귀례 나양균 나용종사 나정수 나홍열 남선자 남은영 남정현 남주희 노경자 노성희 노실호 노영신 노영애 노우현 논술문화 단영숙 대각사 대광사 대산스님 대산스님(손재찬) 대원사 대한불교대덕종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대한불교총화종 덕암스님 덕진스님 도경민 도공주지스님 도법문주 도선스님 도성스님 도암지엄스님 도예린 도우스님 도원스님 도이환 도주양 도찬욱 도현우 동안스님 동은스님 동주주지스님 류매리 류지혜 류진훈 만연사 명인스님 묘길상 묘심사전영순 무애사 무원주지스님 무척사 무해법왕스님 문경숙 문계배 문선희 문수사 문수홍 문숙희 문임숙 문점숙(2) 문정희 미륵종 보덕암 민경애 민미자 민정원 박강숙 박경란 박경숙 박경순 박경희(2) 박계수행 박공임 박광순 박기남 박기임 박기준 박나리(2) 박남순 박말이야 박명희 박무주행 박문선 박미선 박미자 박미희 박보리수 박봉균 박봉영 박상섭 박석란 박성수 박성희 박숙자(2) 박숙희 박순기 박순옥스님 박순자 박순정 박승목 박연신 박영숙(2)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옥순 박옥정 박용수 박은미 박은주 박을선 박장미 박재석 박재필 박재훈 박정노 박정부 박정숙(2) 박정자 박종구 박종림 박종임 박주호 박준영 박지연 박지혜 박지후 박진우 박차선 박찬(2) 박철순 박철홍 박춘봉 박춘자 박해일 박향옥 박현동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2) 박혜란 박혜선 박흥국 방명극 방명섭 방명호 방순자 방장수 방태균 배강숙 배광자 배수진 배숙자 배영숙 배은주 배정민 배정임 배춘식 백광기획 백련사 백미현 백상례 백진구 법광스님 법민스님 법안스님 법열스님 법주스님 변영희 변융태 보광석재 보덕스님 보월스님 보혜스님 불교TV 사단법인열린법당 상현스님 서광사 서미옥 서민자 서병옥 서분임 서석순 서송자 서순례 서순희 서암스님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재현 서정복 서정온 서정완 서정우 서호준 석오스님 선덕스님 선송훈 설정수 성거사주지스님 성동민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산스님 성선영 소순흥 소충호 손문철 손영하 손정숙 손종헌 송동호 송몽스님 송상용 송숙자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송현헌 수덕사 신경자 신남선 신덕근 신동배 신상균 신선희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영희 신용례 신우호 신재근 신주호 신진환 신진희 신창순 신철순 신태순 심경우 심길현 심영애(2) 심영자(2) 심원식(2) 심인봉국사 심춘자 심현보 아차경 안무희 안미숙 안승원 안영수 안영옥 안영우 안정은 안중희 안창순 안현미 약사사 약사암 양도근 양세욱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2) 양인구 양재윤 양재인 양정욱 양현임 양현주 양흥용 엄재욱(2) 엄태영 여래사 연영자 염종희(2) 예태순 오경주 오경환 오길준 오삼순 오세윤 오승훈 오신재 오영희 오용근 오재영 오정애 옥영식 용운사 우림사 우병선 우수연 우순옥 우지예 우춘자 운봉스님 원동처사 원법스님 원정숙 위영란 유경자 유동열 유미 유상재 유재기 유정숙 육성희 윤경희 윤기자 윤기홍 윤미나 윤미희 윤병덕(2) 윤본숙 윤상민 윤석범 윤석승 윤수영 윤순이 윤애순 윤연수 윤월스님 윤정숙 윤정연 윤정일 윤채남 윤향숙 윤현숙 윤희원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경애(2) 이광수 이광훈 이군자 이귀연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금옥 이기덕 이기영 이낙영 이다금 이대섭 이동건 이동숙 이동진(2) 이명수 이명숙(2) 이명순 이명자(2)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2) 이미애 이미옥 이미자 이미화 이민서 이병일 이복성 이복희 이상동 이상숙 이상순 이상조 이상진 이상태 이석호 이선자(2) 이성수 이소주 이수영 이수예 이숙경 이순자 이순희 이승남 이승룡 이양우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재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2) 이옥수 이옥희 이왕구 이용로 이용법 이우순 이우윤 이우환 이원상 이원석 이원호 이원희 이유순 이윤호 이윤희 이은숙 이은지 이은희 이의열 이익수 이인숙 이일봉 이장희 이재숙 이정남 이정안 이정옥 이정자(2) 이정재 이정조 이종섭 이종옥(2) 이종의 이종협 이종화 이중기 이지현(2) 이진선 이진영 이진주 이창홍 이철우 이철헌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홍(2) 이해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희 이형신 이혜산 이화자 이희숙 이희정 일지스님 일진성 임경희 임명성 임미림 임미순(2) 임선희 임옥빈(2) 임윤미 임재철 임점순 임종구 임지숙 임채민 임채식 임춘희 자명스님 자인스님 장규석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윤 장순함 장양경 장영길 장재원 장준영 장준호 장현만 장형하 장혜선 장희숙 재단법인선학원 재단법인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전계영 전대기 전명국 전미자 전병수 전성진 전소윤 전순재 전영경 전일소행 전재호 전행자 정갑임 정경남 정경선 정귀복 정금란 정길동 정동하 정륜스님 정말생 정명스님 정명자 정무웅 정미자 정복남 정석조 정숙점 정안스님 정영수 정영숙 정영순 정영신 정옥화 정용래 정우스님 정은영 정은주(2) 정의진 정인숙(2) 정인순 정일극 정일배 정재평 정정매 정정애 정종윤 정진환 정창남 정태순 정하석 정학진 정해림 정현정 정혜숙 정흥교 조계종백련사 조공옥 조귀임 조동조 조명순 조미영 조민규 조성준 조영숙 조욱현 조욱형 조의연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준석 조창희 조한주 조항석 조현근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공스님 지혜경 진동석 진말련 진일스님 진종호 채광희 천갑순 천병길 천수만 천영기 천우사 천은사 천지현심 청량사 청룡사 청무스님 최갑식 최경수 최대석 최매화 최미령 최백 최병락 최복순 최순옥 최순이 최순자 최영숙 최웅재 최윤희 최은정 최재순(2) 최점순(3) 최점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선 최종대 최종숙 최종열 최종원 최주선 최춘섭 최춘웅 최치영 최현창 최혜숙 최희숙 취산스님 하미희 하재수 하재한 하정암 한경호 한광호 한국불교태고종 한귀동 한기준 한마음법무사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명선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문경지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제주지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청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방근 한보광스님 한부성 한성호 한영찬 한예리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정석 한정숙(2) 한창훈 해인사 행운자원 행허스님 허경순 허복영 허선경 허수자 허애령(2) 허점둘 허추자 허태환 현웅스님 혜륜스님 혜용스님 호정은 홍민자 홍선사 홍순 홍순아 홍순혁 홍승덕 홍승운 홍월자 홍인호 화장사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선영 황용남 황용숙 황인욱 황지영 황태경 황태숙 효심밥상 (주)한진흥업 (재)옥련선원 (주)동국산업 (주)우영기술단건축사무소 각원사주지스님

〈가나다 순〉

법보시 발송처

구 분	발 송 처	부 수
경 찰	경찰서 (130)	134
교화기관	감별소 (2)	4
〃	교도소 (45)	262
〃	구치소, 감호소 (16)	81
〃	소년원 (9)	27
군 부 대	군법당 (199)	271
〃	군병원 (7)	7
병 원	법당 (2)	15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2)	2
〃	노인복지 (18)	19
〃	복지관련대학 (19)	19
〃	복지단체 (25)	26
〃	복지협의회 (1)	1
〃	부랑인복지 (1)	1
〃	아동복지 (20)	20
〃	의료기관 (92)	92
〃	장애인복지 (10)	10
〃	지역복지 (17)	17
〃	청소년복지 (4)	4
합 계	619	1012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